

## 청소년 비행의 추세분석과 전망

노 성 호\*

### 국 | 문 | 요 | 약

본 논문은 청소년 비행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공식통계와 청소년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공식통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령-범죄곡선의 분석외에 연령코호트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범죄율을 살펴보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에는 잠재성장모형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결과 미국의 청소년 폭력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연령코호트일수록 성장함에 따라 폭력범죄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청소년 재산범죄는 최근 연령코호트일수록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율의 뚜렷한 증가나 감소추세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급격한 증가세가 뚜렷하게 완화되어서 14세의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변화되며, 재산범죄율은 15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연령-범죄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연령코호트별 성장추세가 몇 년간 안정적인 모습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과 성장에 따른 범죄증가율이 뚜렷하게 약화되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청소년 비행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할 수 있다.

공식통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비행의 감소와 성장에 따른 범죄율의 감소는 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는 청소년 비행 집단이 두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비행의 감소가 모피트가 말하는 청소년기한정비행자의 비행행동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보여 준다.

❖ 주제어 : 비행추세, 잠재성장모형, 연령-범죄관계

\* 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사회학박사

## I. 시작하는 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문제행동, 특히 비행 또는 범죄행동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사람들은 청소년 비행을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공식통계상의 청소년 비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일반인들의 인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순래(2006)는 최근 공식통계상 소년범의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부와 검찰청, 각급 학교의 징계받은 학생수를 살펴볼 때 학교폭력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공식통계의 한계인 암수범죄와 소년사법정책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비행의 감소가 새로운 경향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행의 감소현상을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구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았다. 그의 주장과 같이 2000년 이후 지속되는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감소경향은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의 연령, 즉 발달단계에 따라서 발생의 빈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비행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서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연령과 범죄의 관계곡선은 청소년기 중기에 비행의 발생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패턴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령-범죄곡선은 서구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청소년 비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식통계와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의 변화패턴을 분석하며, 특히 연령에 따른 범죄의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비행추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공식통계를 통해서 연령과 범죄추세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이 하는 바와 같이 각 년도마다 연령별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연령과 범죄관계의 분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각 년도마다 연령코호트를 설정하고 이들이

매년 성장하면서 범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연령코호트별로 성장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강력(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추세를 전망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패널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비행의 변화는 잠재성장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세분화된 비행유형별로 변화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결과들이 공식통계에서 나타나는 연령-범죄추세와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 검토한다. 더불어 최근에 비행감소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본다.

## II. 공식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의 추세

### 1. 청소년 비행의 추세와 연령-범죄의 관계

공식통계를 사용할 때 청소년비행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 비행의 추세분석이다. 청소년비행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의 경향과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연령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연령구조, 연령코호트별 비행의 증감추세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나타나는 경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에 관해서는 김성언(2000)의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는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청소년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인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답하고 있다. 먼저 그는 한국의 청소년범죄가 전체 범죄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율이 60년대 중반이후 10년을 주기로 감소-증가-감소-증가의 패턴을 밟아오면서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상승하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연령층의 범죄율과 비교하였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재산범죄 대비 폭력범죄의 비율이 늘어남으

로써 폭력화 경향과 전체적인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지만, 흥포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성언(2000)은 99년까지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가 연구한 99년까지는 대체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그 이후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청소년범죄는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감소경향을 보이는 00년 이후의 추세를 90년대와 대비해서 살펴본다.

또 다른 각도에서 청소년 비행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의 연령과의 관계이다. 연령과 범죄의 관계는 범죄학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린버그(Greenberg, 1977)는 미국에서 검거율의 정점이 되는 연령이 범죄유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절도, 침입절도, 차량절도는 15-16세가 정점인데 반해서 중폭행의 정점연령은 21세였고, 약물범죄는 19세가 정점연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미국사회에서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위치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허쉬와 갓프레드슨(Hirschi and Gottfredson, 1983)은 범죄의 연령별 분포는 시간과 공간,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분포를 나타낸다고 비판하였다. 즉 연령-범죄곡선은 1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박철현(2001)은 우리나라의 공식통계, 공식자료, 자기보고조사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령-범죄곡선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검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에 대해서 연령-범죄곡선을 살펴본 결과 서구 사회에 비해서 정점연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범죄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sup>1)</sup>.

미국에서의 이와 같은 연령-범죄 관계에 대한 논의는 비행의 발전과정, 즉 발전범죄학으로 연결된다. 범죄발생이 청소년후기에 정점이 이르렀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패터슨과 동료들(Patterson et al., 1989), 모피트(Moffitt, 1993) 등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를 패터슨은 조기비행자와 후기비행자로 구분하였고, 모피트는 생애지속범죄자와 청소년기한정비행자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

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김성언(2000)의 주장에서 범죄자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범죄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며, 후자는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해서 청소년기가 끝나면 비행을 멈추는 집단으로 본다. 결국 연령-범죄 곡선은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후자의 집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청소년범죄의 전체적인 추세와 연령-범죄 관계를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두 나라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의 전체적인 구성과 경향을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FBI에서 제공하는 Uniform Crime Report에서 지표범죄로 검거된 인원의 통계를 사용하여, 범죄의 추세와 청소년 연령별 범죄율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죄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별로 나누어서 청소년들의 추세와 연령별 범죄율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연도별로 제시된 각 연령별 범죄율과 더불어 각 연도별로 연령코호트 자료를 만들어서 특정 연령코호트가 성장하면서 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추적하여, 성장과정에서 연령별 범죄율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추세 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 2. 미국의 청소년 비행추세 및 연령-범죄 관계

〈표 1〉 미국 지표범죄 전체 연령 및 18세미만 검거인원 추세

연도	전체연령						18세 미만					
	폭력범죄	지수	재산범죄	지수	지표범죄전체	지수	폭력범죄	지수	재산범죄	지수	지표범죄전체	지수
1995	619,230	100	1,620,704	100	2,239,934	100	115,592	100	561,634	100	677,226	100
1996	548,146	88.5	1,506,459	93.0	2,054,605	91.7	102,231	88.4	530,531	94.5	632,762	93.4
1997	501,353	81.0	1,409,600	87.0	1,910,953	85.3	86,462	74.8	490,386	87.3	576,848	85.2
1998	481,278	77.7	1,292,825	79.8	1,774,103	79.2	79,999	69.2	426,637	76.0	506,636	74.8
1999	420,156	67.9	1,091,917	67.4	1,512,073	67.5	67,916	58.8	352,627	62.8	420,543	62.1
2000	415,573	67.1	1,080,797	66.7	1,496,370	66.8	65,910	57.0	345,731	61.6	411,641	60.8
2001	434,391	70.2	1,120,346	69.1	1,554,737	69.4	67,002	58.0	340,104	60.6	407,106	60.1
2002	447,048	72.2	1,170,165	72.2	1,617,213	72.2	66,508	57.5	349,099	62.2	415,607	61.4
2003	418,964	67.7	1,139,360	70.3	1,558,324	69.6	64,799	56.1	328,823	58.5	393,622	58.1
2004	420,169	67.9	1,186,390	73.2	1,606,559	71.7	65,303	56.5	326,312	58.1	391,615	57.8
2005	445,846	72.0	1,195,560	73.8	1,641,406	73.3	70,482	61.0	310,887	55.4	381,369	56.3
2006	447,932	72.3	1,136,602	70.1	1,584,534	70.7	73,991	64.0	298,568	53.2	372,559	55.0
2007	451,071	72.8	1,226,945	75.7	1,678,016	74.9	73,427	63.5	319,225	56.8	392,652	58.0

\* 지표범죄중 폭력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상해가 포함되고, 재산범죄에는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방화가 포함됨

2) 이하 표에서 제시된 범죄율은 해당연령의 인구 10만명당 검거된 범죄자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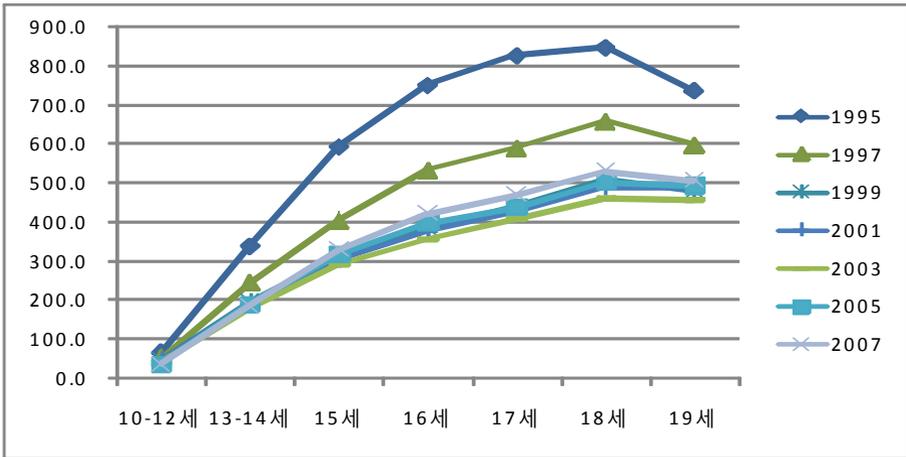
〈표 1〉에는 미국에서 지표범죄로 검거된 범죄자의 추세가 제시되었다. 먼저 전체 연령에서 범죄의 추세를 살펴보면 지표범죄는 95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00년을 바닥으로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07년의 지표범죄 발생은 95년의 75%정도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범죄발생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두 범죄유형 모두 95년부터 감소하여 00년까지 줄어들다가 01년부터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범죄도 95년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과는 달리 00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일시적인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07년의 청소년 범죄는 95년 대비 58%에 머물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살펴보면 두 유형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죄는 감소하다가 03년을 저점으로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재산범죄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범죄는 전체범죄의 추세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 역시 더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년도별 청소년범죄자의 범죄율을 연령별로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 〈표 2〉와 〈표 3〉과 〈그림 1〉, 〈그림 2〉이다.

〈표 2〉 미국 지표범죄중 폭력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연도	10-12세	13-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5	65.3	338.1	593.3	750.4	825.6	847.2	735.3
1996	56.9	286.3	511.8	635.9	727.9	751.3	673.3
1997	51.9	244.8	403.9	532.4	589.3	658.0	596.7
1998	50.8	220.3	366.7	468.6	557.9	603.7	576.5
1999	47.1	194.6	313.5	384.8	439.8	508.8	482.0
2000	44.4	191.3	297.9	363.3	429.9	484.8	479.5
2001	45.3	188.6	304.6	375.5	429.6	488.9	490.2
2002	42.9	183.2	296.8	372.6	432.8	493.9	490.9
2003	41.3	180.1	292.5	358.8	409.1	463.1	457.7
2004	38.7	177.0	296.5	367.1	410.7	458.4	452.4
2005	38.6	189.8	317.2	397.8	437.4	501.4	491.9
2006	37.9	193.4	337.6	414.2	466.5	519.1	497.5
2007	36.2	185.4	330.1	422.9	469.8	530.8	5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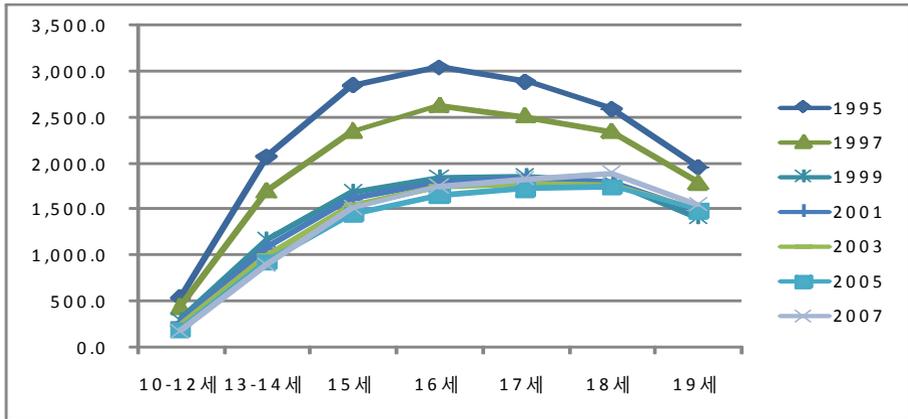
〈그림 1〉 미국 청소년 폭력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표 2〉와 〈그림 1〉은 지표범죄 중에서 폭력범죄의 연령별 범죄율을 보여준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각 년도의 연령별 범죄구성은 범죄율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다. 10-12세부터 비행율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17세와 18세경에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99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폭이 줄어든다. 따라서 최근에 올수록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증가가 완만해지며, 이러한 패턴은 99년부터 07년까지 거의 동일하다. 청소년 폭력범죄의 이러한 패턴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형적인 연령-범죄곡선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표 3〉과 〈그림 2〉의 재산범죄는 폭력범죄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정점에 이르는 연령이 16세로 낮아진다. 범죄율은 10-12세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16세에 정점에 이른 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전반적인 범죄율은 앞서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95년과 97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99년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유형에 따라서 정점연령이 달라진다는 그린버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표 3〉 미국 지표범죄중 재산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연도	10-12세	13-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5	538.1	2,075.7	2,846.7	3,046.7	2,889.4	2,590.2	1,959.1
1996	478.2	1,850.2	2,682.1	2,845.4	2,779.3	2,519.5	1,879.1
1997	448.0	1,698.9	2,351.1	2,627.9	2,510.2	2,345.2	1,789.6
1998	376.2	1,449.3	2,026.8	2,221.1	2,256.1	2,109.0	1,671.3
1999	302.9	1,164.9	1,678.7	1,841.7	1,857.2	1,786.7	1,405.3
2000	285.8	1,125.2	1,631.9	1,806.4	1,834.5	1,746.2	1,426.3
2001	268.3	1,079.0	1,611.6	1,795.1	1,835.5	1,793.0	1,479.7
2002	265.0	1,087.3	1,633.8	1,860.0	1,888.8	1,873.7	1,556.5
2003	243.8	998.3	1,544.7	1,751.6	1,781.7	1,769.3	1,494.9
2004	226.0	996.8	1,536.2	1,720.5	1,764.3	1,768.6	1,470.1
2005	196.8	925.3	1,446.6	1,649.3	1,719.6	1,740.9	1,486.7
2006	176.0	878.2	1,410.7	1,563.7	1,663.0	1,692.6	1,399.2
2007	174.9	893.7	1,512.2	1,750.6	1,831.0	1,895.7	1,5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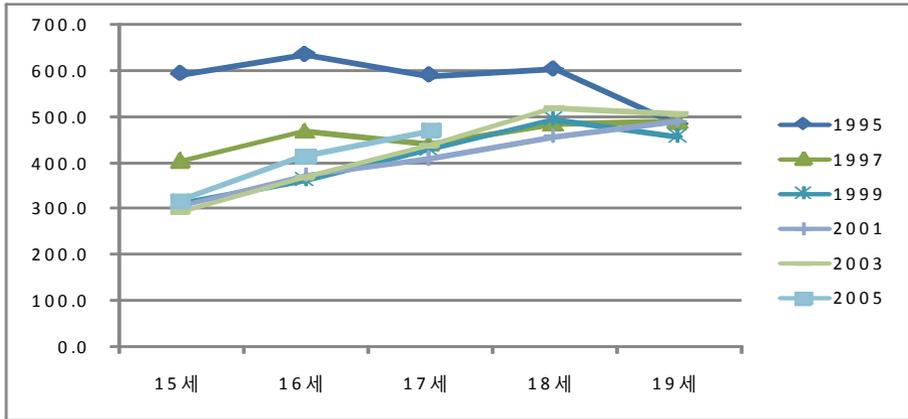
〈그림 2〉 미국 청소년 재산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지금까지 살펴본 연령-범죄 곡선은 서로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같은 해에 연령집단에 따라서 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엄밀한 의미에서 연령-범죄곡선이라고 보기를 어렵다. 같은 연령코호트가 성장하면서 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연령-범죄곡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4〉와 〈표 5〉에서는 이러한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를 제시하였다. 표 좌측의 연도는 기준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년

도의 15세를 연령코호트를 출발점으로 본다.<sup>3)</sup>

〈표 4〉 미국 청소년 폭력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기준년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5	593.3	635.9	589.3	603.7	482.0
1996	511.8	532.4	557.9	508.8	479.5
1997	403.9	468.6	439.8	484.8	490.2
1998	366.7	384.8	429.9	488.9	490.9
1999	313.5	363.3	429.6	493.9	457.7
2000	297.9	375.5	432.8	463.1	452.4
2001	304.6	372.6	409.1	458.4	491.9
2002	296.8	358.8	410.7	501.4	497.5
2003	292.5	367.1	437.4	519.1	506.3
2004	296.5	397.8	466.5	530.8	-
2005	317.2	414.2	469.8	-	-



〈그림 3〉 미국 청소년 폭력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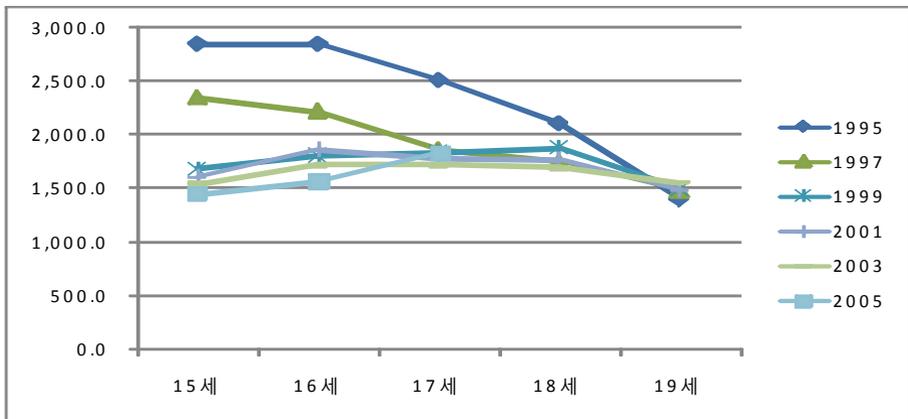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그림 1, 2와 그림 3, 4에서 보여주는 연령-범죄곡선은 그 형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3〉에 의하면 95년도 연령코호트의 폭력범죄는 상승-하강의 형태가 아니라 높은 범죄율이 지속되다가 19세가 되면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3) 95년의 15세는 96년의 16세, 97년의 17세... 이러한 방식으로 19세까지 추적하여 해당 연령코호트의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공식통계가 10-12세, 13-14세로 제공되는 낮은 연령대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미국의 청소년 연령별 인구는 미국 통계국의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표에서 연령코호트의 기준연령은 14세이다.

다. 그렇지만 97년이후의 코호트에서는 15세 때의 범죄율이 95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출발한다. 00년대의 코호트부터는 범죄율이 약 300정도로 95년의 절반에서 시작해서 15세부터 18세로 성장하면서 폭력범죄율이 증가하다가 19세가 되면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미국 청소년의 폭력범죄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령코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 성장에 따른 폭력범죄율이 증가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형태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미국 청소년 재산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재산범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5	2,846.7	2,845.4	2,510.2	2,109.0	1,405.3
1996	2,682.1	2,627.9	2,256.1	1,786.7	1,426.3
1997	2,351.1	2,221.1	1,857.2	1,746.2	1,479.7
1998	2,026.8	1,841.7	1,834.5	1,793.0	1,556.5
1999	1,678.7	1,806.4	1,835.5	1,873.7	1,494.9
2000	1,631.9	1,795.1	1,888.8	1,769.3	1,470.1
2001	1,611.6	1,860.0	1,781.7	1,768.6	1,486.7
2002	1,633.8	1,751.6	1,764.3	1,740.9	1,399.2
2003	1,544.7	1,720.5	1,719.6	1,692.6	1,553.3
2004	1,536.2	1,649.3	1,663.0	1,895.7	-
2005	1,446.6	1,563.7	1,831.0	-	-



〈그림 4〉 미국 청소년 재산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그림 4〉에서는 재산범죄의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95년도 코호트에서는 15세와 16세에 높은 재산범죄율을 보이지만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범죄율이 떨어져서 19세가 되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97년의 코호트는 15세에서 95년보다 좀 낮게 출발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유사하다. 그렇지만 99년부터 03년까지의 코호트는 15세 때의 범죄율이 더 낮게 1500정도에서 시작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05년의 코호트는 3년간의 자료밖에 없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재산범죄율이 약간 상승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95년부터 03년까지 19세의 재산범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미국 청소년의 재산범죄율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고 미래에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추세 및 연령-범죄 관계

〈표 6〉 우리나라 소년, 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

연 도	청소년			성 인	
	인 원	소년비	인구비	인 원	인구비
1997	95,666 (100)	11.2	155.3	761,873 (100)	240.3
1998	99,552 (104)	10.2	165.0	872,950 (114)	271.2
1999	93,261 (97)	10.4	158.8	804,124 (105)	255.4
2000	94,465 (98)	9.9	166.3	858,147 (112)	258.1
2001	82,746 (86)	11.0	156.8	857,831 (112)	249.0
2002	75,982 (79)	8.6	147.2	802,645 (105)	227.2
2003	67,135 (70)	6.5	130.1	958,005 (126)	274.0
2004	51,298 (54)	6.1	99.9	795,848 (104)	224.6
2005	50,652 (53)	6.4	98.1	743,640 (97)	220.8
2006	50,846 (53)	6.5	97.7	736,149 (97)	212.3

1. 출처: 범죄백서 2007

2. 소년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이고, 성인인구비는 20세이상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3. 소년비는 소년범/(소년범+성인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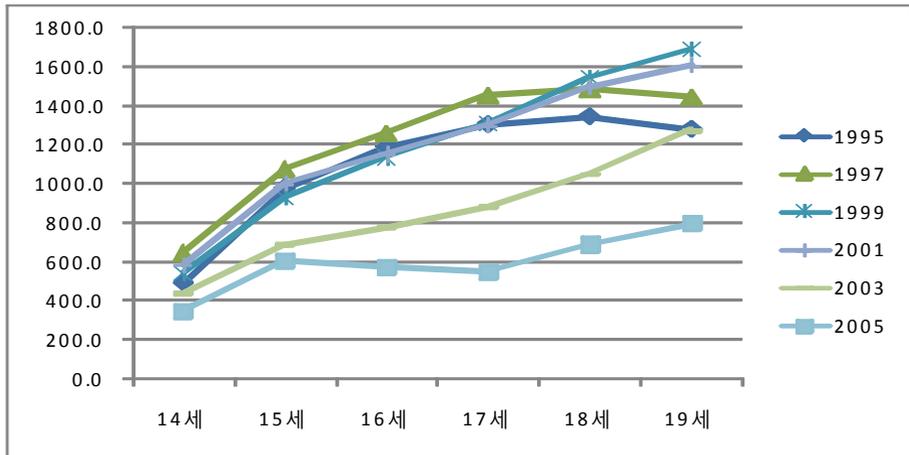
〈표 6〉에는 우리나라 형법범 중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성인의 범죄추세를 보면 97년을 기준으로 0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인구비를 살펴보면 조금 달라진다. 03년을 제외하면 98년 이후 성인범죄의 인구비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 청소년의 범죄발생은 9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범죄자의 수를 보면 06년에는 97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줄어들어서 97년의 11.2에서 06년에는 6.5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 범죄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우리나라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연령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5	490.5	975.9	1188.8	1304.1	1343.5	1278.2
1996	518.6	924.8	1129.9	1253.6	1432.3	1338.3
1997	644.9	1074.7	1257.8	1451.8	1485.5	1444.0
1998	468.0	855.5	1083.4	1289.4	1584.9	1544.3
1999	543.8	927.1	1136.1	1307.3	1542.0	1686.3
2000	681.1	1074.4	1193.6	1412.6	1563.6	1646.1
2001	585.1	1001.8	1152.4	1298.6	1496.9	1606.3
2002	456.0	783.4	886.0	991.6	1222.4	1458.6
2003	435.3	686.7	777.9	881.4	1049.7	1274.5
2004	300.7	469.1	470.8	623.4	830.6	978.6
2005	348.9	604.2	572.9	549.9	688.5	794.5

\*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성폭력특별법, 폭행, 상해, 공갈, 폭력행위 등을 포함한 인원임



〈그림 5〉 우리나라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이와 같이 빠른 감소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구성을 <표 7>과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강력(폭력)범죄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0년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5년부터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증가율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데, 95년과 97년의 경우에 18세까지는 빠른 속도로 범죄율이 증가하다가 19세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99년과 01년에는 14세부터 19세까지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증가율은 03년부터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해서 05년에는 나이가 높아짐에 따른 범죄율의 증가가 완만한 형태로 변화한다. 그렇지만 정점연령은 19세로 나타나고 있다. 10년동안 강력범죄의 범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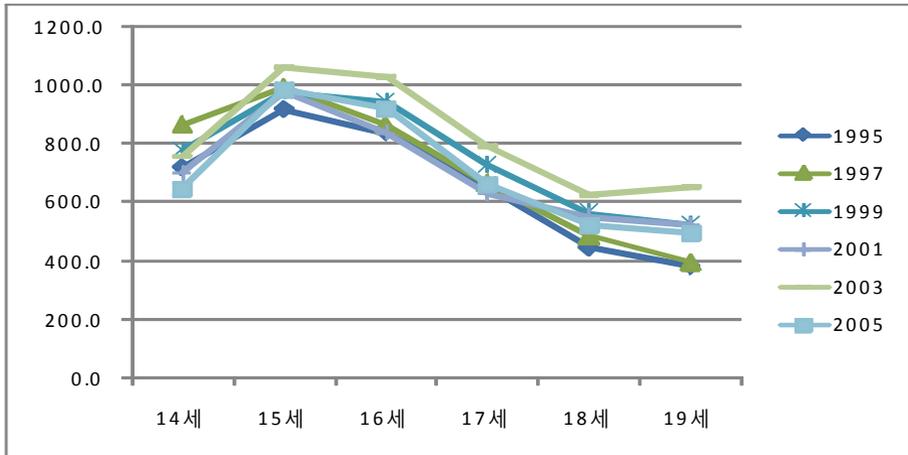
한편 <그림 6>에서 재산범죄의 연령별 범죄율추세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의 연령별 범죄율패턴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이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청소년 재산범죄의 정점연령은 15세이다. 15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재산범죄율은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대체로 17세 정도에는 14세와 비슷한 범죄율로 떨어지고 18, 19세에서는 그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 최근 2년 정도 19세의 범죄율이 18세보다 높게 반전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범죄율이 감소하는 일관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형법범에 있어서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범죄율의 연령-범죄곡선은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정점연령에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범죄는 최근 들어 기울기가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지난 10년간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반면 재산범죄율은 15세를 정점연령으로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연령-범죄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표 8〉 우리나라 청소년 재산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연령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5	718.5	916.5	838.0	650.8	446.1	383.6
1996	760.6	933.3	855.9	621.8	479.0	410.1
1997	863.9	991.3	862.0	665.9	483.8	395.0
1998	942.4	1170.1	1089.8	851.0	687.0	545.5
1999	777.4	975.8	942.8	727.2	565.2	526.4
2000	915.8	1190.0	984.0	734.8	508.0	462.9
2001	701.3	977.7	838.9	632.9	551.6	524.0
2002	742.8	1122.5	1099.2	811.7	650.5	639.5
2003	759.7	1063.7	1030.0	797.0	628.2	656.6
2004	588.0	852.9	811.2	697.3	589.8	600.5
2005	645.6	984.1	920.2	661.3	522.4	494.8

\*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장물등을 포함한 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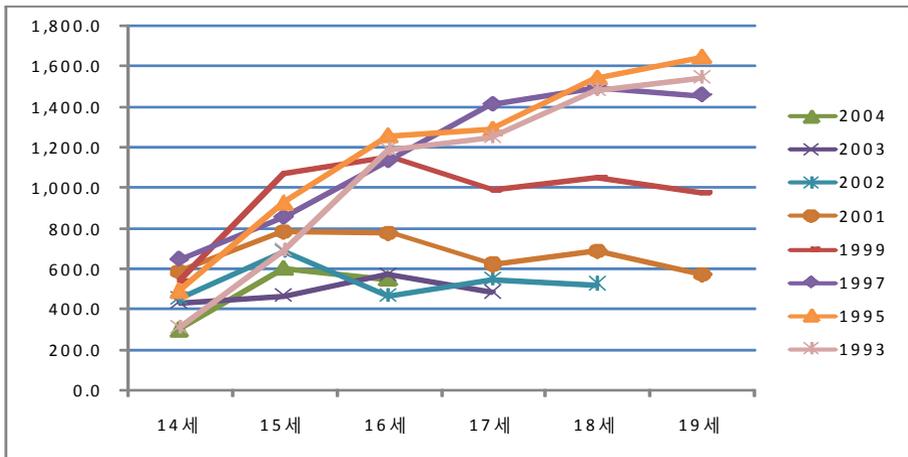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별 범죄율 추세

이러한 연령과 범죄의 관계가 연령코호트를 추적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표 9〉와 〈표 10〉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7〉을 보면 강력범죄율은 연령코호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93년부터 97년까지의 14세 연령코호트는 성장할수록 강력범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세가 정점연령이다. 그렇지만 99년부터 이러한 형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99년 코호트의 경우 16세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강력범죄율이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되며 01년 이후의 코호트부터는 14, 15세 이후 강력범죄율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으면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정도로 그 형태가 변화된다. 이런 형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완만한 형태를 보이지만 15세를 정점으로 강력범죄율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표 9〉 우리나라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강력범죄율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3	312.3	694.7	1,188.8	1,253.6	1,485.5	1,544.3
1994	361.6	975.9	1,129.9	1,451.8	1,584.9	1,686.3
1995	490.5	924.8	1,257.8	1,289.4	1,542.0	1,646.1
1996	518.6	1,074.7	1,083.4	1,307.3	1,563.6	1,606.3
1997	644.9	855.5	1,136.1	1,412.6	1,496.9	1,458.6
1998	468.0	927.1	1,193.6	1,298.6	1,222.4	1,274.5
1999	543.8	1,074.4	1,152.4	991.6	1,049.7	978.6
2000	681.1	1,001.8	886.0	881.4	830.6	794.5
2001	585.1	783.4	777.9	623.4	688.5	572.9
2002	456.0	686.7	470.8	549.9	526.7	-
2003	435.3	469.1	572.9	486.6	-	-
2004	300.7	604.2	551.8	-	-	-



〈그림 7〉 우리나라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연령코호트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강력, 폭력범죄경향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연령대의 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해지고 있음은 우리나라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들어섰으며,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가까운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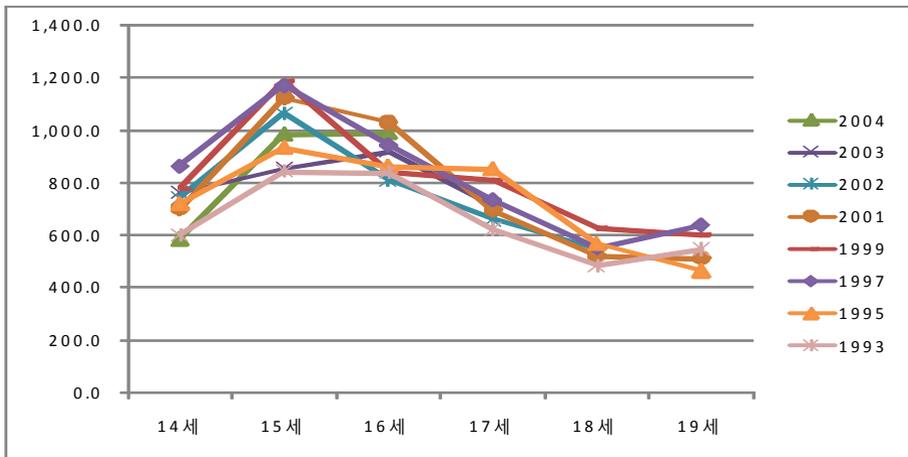
가능하게 한다.

〈그림 7〉에서 강력범죄자의 평균연령은 90년대 중반보다 최근에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러한 저연령화는 낮은 연령대의 강력범죄가 증가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연령대의 범죄가 감소함으로서 나타난 것이기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연령코호트가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강력, 폭력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은 2000년 이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표 10〉 우리나라 청소년 재산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재산범죄율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993	600.7	842.0	838.0	621.8	483.8	545.5
1994	710.7	916.5	855.9	665.9	687.0	526.4
1995	718.5	933.3	862.0	851.0	565.2	462.9
1996	760.6	991.3	1,089.8	727.2	508.0	524.0
1997	863.9	1,170.1	942.8	734.8	551.6	639.5
1998	942.4	975.8	984.0	632.9	650.5	656.6
1999	777.4	1,190.0	838.9	811.7	628.2	600.5
2000	915.8	977.7	1,099.2	797.0	589.8	494.8
2001	701.3	1,122.5	1,030.0	697.3	522.4	513.2
2002	742.8	1,063.7	811.2	661.3	547.3	-
2003	759.7	852.9	920.2	715.5	-	-
2004	588.0	984.1	989.9	-	-	-



〈그림 8〉 우리나라 청소년 재산범죄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

〈그림 8〉에는 연령코호트별로 재산범죄율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재산범죄율의 연령코호트별 변화는 〈그림 6〉에서 살펴본 연령별 범죄율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93년부터 04년까지 모든 연령코호트는 15세의 연령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재산범죄율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 연령대의 범죄율 차이는 대략 200 이내이며, 모든 그래프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와는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01년과 02년에는 그 이전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재산범죄의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는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증가 후 감소라는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며 연령코호트가 달라져도 이러한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재산범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연령-범죄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를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연령코호트별 범죄율추세가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폭력범죄가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율의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재산범죄는 급격한 증가나 감소 없이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의 증가에도 유지 또는 감소의 형태를 보이고, 재산범죄는 15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를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경우 재산범죄는 급격한 증가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폭력범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할 수 있으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범죄도 안정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며 재산범죄 역시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 Ⅲ. 청소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 추세의 분석

#### 1.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의 추세 분석

앞서 연령-범죄의 관계는 발전범죄학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연령코호트별 범죄율 추세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범죄의 감소는 주로 낮은 연령에서의 범죄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강력범죄에서 증가형태, 재산범죄에서 유지형태가 된 것은 결국 15세부터 17세까지의 범죄율이 낮아진데서 기인한 것이다<sup>4)</sup>.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범죄가 유지 또는 감소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은 높은 연령대의 범죄율이 감소하는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발전범죄학의 논의를 적용시켜본다면 모피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지속범죄자는 그대로 있는데, 청소년기한정범죄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확한 대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식통계만으로는 이러한 비행집단의 존재에 대한 검증과 특성을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패널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추세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비행의 추세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행집단의 구분이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도 검토한다.

최근 패널자료를 분석할 때 특정요인들의 경향과 변화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김영찬, 황홍선, 2006; 이기봉, 박일혁, 2001; 정익중, 2007; 홍세희, 유숙경, 2004). 이러한 추세와 함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정소희, 2006). 잠재성장모형은 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비행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및 개인간의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비행의 추세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정소희(2006)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정소희(2006)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14가지의 비행을 하나로 합산하여 등간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자유모수변화모형 중에서 자유모수변화모형이 비행의 변화패턴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비행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3년간 동일한 정도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2차년에서 3차년의 변화율은 1차년과

4) 다만 아쉬운 점은 연령코호트에서 15세 미만의 범죄율추세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차년의 변화율의 절반이하로서 비행의 변화가 선형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비행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의 감소율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행의 수준에 따라서 감소폭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소희(2006)가 말하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패터슨(Patterson et al, 1989), 룽과 동료들(Laub, et al, 1998), 모피트(Moffitt, 1993)의 논의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보인다.

정소희의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행의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낸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 2. 청소년 패널자료의 성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패널조사는 동일 표본을 세 번이상의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를 기본원칙으로, 전국의 중학교 2학년생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중학교 2학년 패널 중에서 4개년간의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공식통계와의 비교를 위해서도 그 연령대가 초등학교 패널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패널은 2003년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방법을 통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조사에서 최종적으로 3,449명의 청소년 및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이 표본을 바탕으로 이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조사부터는 1차와는 달리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성공사례는 2차년도 3,211명, 3차년도에는 3,125명, 4차년도에는 3,121명이다

청소년 패널자료의 수집이 진행되면서 비행부분의 측정에 있어서 범죄행동에 해당되는 항목들의 급격한 감소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시도되었다. 패널자료의 특성에 따른 밴드왜건 효과와 테스트 효과 등에 따른 결과로서 실제의 비행감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주장(민수홍, 2006)과 실제로 비행감소라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김성연, 2006; 노성호, 2006; 이순래, 2006; 박철현, 2006)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주장들을 종합한 결과 일부 테스트 효과가 패널효과가 작용한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비행의 측정결과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한다.

### 3.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 가. 모형의 설정

정소희(2006)의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비행을 분석함에 있어서 몇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비행항목으로 측정한 14개의 비행항목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비행행위들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여러 하위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분석결과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저지르는 일부 비행유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비행복합척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별 비행행위의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행유무만을 합산한 변인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종변인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비행행동의 유형수를 의미한다<sup>5)</sup>. 결국 최종변인의 값의 증가와 감소는 비행행동 가짓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경우 개별 비행의 빈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비행의 심각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행의 유형을 비슷한 성격의 비행행동들의 집합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비행의 변화가 어떤 변화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으로 구분한다. 지위비행은 성인이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이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서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청소년출입금지장소의 출입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유형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에서는 사실상 집계되지 않는 유형의 행동이다. 지위비행 중에서도

---

5) 즉 최종변인의 값 1은 청소년이 1가지 비행을 했다는 의미이고, 3이라는 의미는 3가지 비행을 했다는 의미이다.

음주, 흡연 그리고 가출과 무단결석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범죄행동에는 폭행, 패싸움, 협박, 금품갈취, 절도가 포함된다. 범죄행동은 공식통계에서도 집계되는 행동유형이다. 범죄행동은 다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폭력범죄에는 폭행, 패싸움, 협박을, 재산범죄에는 금품갈취와 절도를 포함시켜서 유형을 구분하고 별도로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비행유무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의 빈도까지 고려하여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sup>6)</sup>. 각 비행하위차원의 평균분포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4개의 비행하위차원의 평균분포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음주흡연	0.53	0.64	0.94	1.40
가출무단결석	0.14	0.18	0.16	0.16
폭력범죄	0.30	0.15	0.09	0.08
재산범죄	0.23	0.13	0.05	0.04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비행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비행의 변화모형을 5가지 설정한 다음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초기값만 있고 변화율은 설정하지 않은 모형으로서 비행이 4년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선형변화모형은 비행이 4년간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초기값과 변화율의 잠재요인이 있는 모형으로 초기값에서 각 시점의 측정값으로 나가는 화살표의 계수를 1로 고정하고, 변화율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측정간격이 동일하면 0, 1, 2, 3으로 고정하여 선형변화를 살펴보는 모형이다. 자유모수 변화모형은 선형 변화모형과 요인구조는 동일하지만 비행의 변화양상에 대한 특정한 가설을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 이 모형에서는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특정한 숫자로 미리 지정하여 변화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1, 2차년도에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0, 1로 고정하지만 3, 4차년도의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모형이다<sup>7)</sup>. 선형 변화후 무변화 모형은 선형 변화모형과 요인구조는 같으나 변화율의 요인

6) 비행의 빈도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 비행행위별로 적절하게 재부호화하였다.

7) 여기에서 1, 2차년도의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로 고정하는 이유는 일종의 기준 간격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의 변화를 1로 놓았을 때 2차년도에서 3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계수를 0, 1, 2, 3이 아니라 0, 1, 2, 2의 계수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3차년까지는 선형으로 변화하지만 4차년에는 3차년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비선형변화모형은 제곱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제곱형태의 비선형적인 변화(2차곡선 형태)를 가정한 모형이다. 선형 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요인에 이차곡선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선형적인 성장과 이차곡선적인 성장의 형태를 모두 고려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요인의 계수는 선형 변화모형과 동일하며 이차곡선적인 요인의 계수는 0, 1, 4, 9를 부여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합도지수로서  $\chi^2$ 의 수치를 모델간에 비교하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NFI, CFI, TLI(NNFI)를 사용하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RMSEA를 사용한다. NFI와 CFI, TLI는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이며, 대체로 0.9이상이면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다. RMSEA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서, 0.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1보다 작으면 보통의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sup>8)</sup>(홍세희, 2000).

## 나. 비행유형별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표 12〉에서 지위비행중에서 음주 흡연에 대한 여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면 자유모수 변화모형과 비선형 변화모형이 낮은 카이제곱값과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두 모형을 비교하면 비선형 변화모형이 음주 흡연의 변화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형 변화모형을 선정하고 추정치를 구해보면 초기값은 평균이 .599, 변량이 1.241로서 모두 유의미하여 음주 흡연의 초기값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개인간의 차이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형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형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변화율의 변량은 유의미하여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곱변화율의 평균이 .08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에서 4차년도의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변화율의 3, 4차년도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함으로써 자료의 실제적 변화에 가깝게 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지만 자유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모형의 간명도를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8) 홍세희(2000)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서 CFI, NNFI(TLI), RMSEA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중2에서 고2로 가는 동안에 음주와 흡연이 증가하는데 선형이 아니라 이차함수 형태,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1, 2학년이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음주와 흡연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곱변화율의 변량도 유의미하여, 개인간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음주 흡연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구분	카이자승	df	NFI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1383.8	8	.642	.643	.553	.223
선형 변화모형	175.5	5	.955	.956	.911	.099
자유모수 변화모형	92.4	3	.976	.977	.923	.093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	285.6	5	.926	.927	.854	.128
비선형 변화모형	76.0	3	.980	.981	.936	.084

〈표 13〉 음주 비행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구분	평균	변량
초기값	.599 ***	1.241 ***
변화율	.017	.202 ***
제곱변화율	.086 ***	.012 **
초기값-변화율의 상관계수	-.138 **	

〈표 14〉에서 가출과 무단결석에 대한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과 비선형 변화모형의 카이자승값이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할 때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TLI, RMSEA 값에 있어서 눈에 띄는 향상이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을 선택하고 추정치를 구하였을 때 초기값은 평균이 .149, 변량이 .273으로 모두 유의미하여, 가출 무단결석의 중2 초기값에서 개인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평균은 .013, 변량은 .057로서 모두 유의미하다. 변화율이 정적인 방향이기에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가출과 무단결석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564로서 유의미한데, 이는 초기값이 높을수록 변화율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가출 무단결석을 많이 한 청소년들의 증가율보다는 초기에 별로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예전에 가출 무단결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형의 설정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증가는 고1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4〉 가출 무단결석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구 분	카이자승	df	NFI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183.1	8	.906	.909	.887	.080
선형 변화모형	53.3	5	.973	.975	.950	.053
자유모수 변화모형 <sup>9)</sup>	--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	27.6	5	.986	.988	.977	.036
비선형 변화모형	37.5	3	.981	.982	.940	.058

〈표 15〉 가출, 무단결석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구 분	평 균	변 량
초기값	.149 ***	.273 ***
변화율	.013 *	.057 ***
초기값 변화율의 상관계수	-.564 ***	

이상에서 지위비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 흡연은 학생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가출과 무단결석은 선형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아져도 가출, 무단결석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전에 가출 무단결석을 덜한 학생들의 증가율이 더 커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위비행은 범죄공식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항목이기에 앞장에서의 결과와 비교는 불가능하다.

〈표 16〉 폭력범죄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구 분	카이자승	df	NFI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359.1	8	.726	.730	.663	.113
선형 변화모형	112.9	5	.914	.917	.834	.079
자유모수 변화모형 <sup>10)</sup>	--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	56.1	5	.957	.961	.922	.054
비선형 변화모형	63.5	3	.952	.954	.845	.076

9) 가출 무단결석에서 자유모수 변화모형은 잠재변인의 초기값과 기울기의 변량이 음의 수치로 나와서 추정이 안되었다.

〈표 17〉 폭력범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구 분	평 균	변 량
초기값	.208 ***	.353 ***
변화율	-.098 ***	.070 ***
초기값-변화율의 상관계수	-.806 ***	

〈표 16〉에는 범죄행동 중에서 폭력범죄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서 5개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과 비선형 변화 모형이 낮은 카이제곱값을 보이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가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이 더 좋기 때문에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모형의 추정치를 구한 결과 초기값은 평균이 .208, 변량이 .353으로서 유의미하다. 즉 폭력범죄의 초기수준이 유의미하며, 개인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변화율은 평균이 -.098, 변량이 .070으로 모두 유의미하다. 이는 폭력범죄가 중2부터 고1까지는 선형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이 그 수준을 유지하며, 감소율에 있어서의 개인차이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806으로서 매우 높다. 변화율이 부적인 방향이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데,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들, 즉 중2때 폭력을 많이 했던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폭력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2때 폭력범죄의 빈도가 높은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폭력범죄의 빈도가 서서히 감소하고, 폭력범죄의 빈도가 낮았던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폭력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18〉에서 재산범죄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화모형은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변화모형과 카이제곱의 값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기타 적합도 지수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치를 구했을 때, 전반적인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폭력범죄와 유사하다. 초기값의 평균은 .223, 변량은 .309로서 유의미하며, 변화율의 평균은 -.088, 변량은 .067로서 모두 유의미하다. 중2부터 고1까지 재산범죄가 선형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며, 고1 이후에는 변화가 없이 그 수준이 유지된다. 초기값과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이도 모

10)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자유모수 변화모형은 iteration의 제한에 걸려서 모델의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설명모델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상당히 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944로서 매우 높다. 중2때 재산범죄의 빈도가 높은 청소년은 서서히 감소하고, 재산범죄의 빈도가 낮은 청소년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8〉 재산범죄의 5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구분	카이자승	df	NFI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558.6	8	.390	.392	.240	.141
선형 변화모형	150.4	5	.836	.839	.679	.092
자유모수 변화모형	--					
선형변화 후 무변화모형	34.0	5	.963	.968	.936	.041
비선형 변화모형	106.5	3	.884	.886	.619	.100

〈표 19〉 재산범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구분	평균	변량
초기값	.223 ***	.309 ***
변화율	-.088 ***	.067 ***
초기값-변화율의 상관계수	-.944 ***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의 변화패턴을 공식통계와 비교하면 폭력범죄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통계의 경우 재산범죄의 정점연령이 15세로 나타나는데 패널조사의 분석에서는 중2의 연령에 해당하는 14세가 가장 높고 그 이후 감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감소패턴은 유사하다. 한편 폭력범죄의 경우 패널자료에서는 성장함에 따라서 선형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공식통계에서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강력범죄의 추세도 최근으로 올수록 15세를 전후로 계속 그 수준이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두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식통계로 집계될 수 있는 강력(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질적인 측면과 자기보고조사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대책으로 인해서 공식통계에 집계될만한 폭력행위보다는 학생들간의 일반적인 폭력 등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범죄행동에 해당하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이 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령-범죄곡선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형태의 비행집단의 존재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 나이, 즉 중2때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빈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범죄가 완만하게 줄어들지만, 빈도가 낮았던 학생들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현상에서 전자의 경우는 조기비행자 또는 생애지속범죄자이며, 후자의 학생들은 후기비행자 또는 청소년기한정비행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청소년 비행의 감소가 청소년기한정비행자의 비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서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공식통계와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의 추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를 분석할 때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의 경향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코호트별로 성장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비행의 추세와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연령코호트별 범죄율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폭력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형태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의 증가에 따라 폭력범죄율도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산범죄의 경우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형태에서 최근의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15세 정도의 범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범죄패턴의 변화는 연령코호트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서의 범죄율 감소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강력범죄는 90년도 중반의 연령코호트에서는 성장함에 따라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최근 연령코호트일수록 증가세와 완화되어서 강력범죄율이 14세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재산범죄는 전통적인 연령-범죄곡선과 유사하게 15세까지 증가하다가 15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며 연령코호트가 달라져도 10여년간

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강력범죄의 추세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연령코호트의 높은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범죄율이 감소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코호트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최근 몇 년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청소년 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폭력범죄는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코호트의 강력범죄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강력범죄와 폭력범죄의 발생이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산범죄의 경우 현재와 같은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유지 또는 감소형태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는 비행의 감소가 어려서 비행을 많이 저지른 소년보다는 비행의 빈도가 낮았던 청소년에게서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다른 비행집단유형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현재의 비행의 감소추세는 모피트가 언급한 청소년기한정비행자들의 비행감소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행에 있어서 변화형태가 세분화된 비행유형에 따라서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은 그 변화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음주와 흡연은 성장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가출과 무단결석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선형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들 비행항목들을 분석할 때 단일차원으로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 비행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언(2000),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현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11(4): 1-36
- 김성언(2006), “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검토,”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김성언, 노성호(1999), 청소년범죄 추세분석 : 196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영찬, 황홍선(2006), “고객만족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방법론,” 경영학연구 35(4) : 1203-1221
- 김준호, 노성호, 오수정, 장은숙(1991),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노성호(2006),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비행감소에 대한 몇 가지 분석,”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199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3-2005
- 민수홍(2006),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의 자기보고와 테스트 효과,”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박철현(2001),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한국인구학 24(2) : 149-177
- 박철현(2006), “비행의 변화량에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효과,”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이기봉, 박일혁(2001), “중단적 운동수행력의 변화 분석: 잠재성장모형의 이용,” 한국체육학회지 40(2) : 885-897
- 이순래(2006),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의 최근 동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정소희(2006),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 : 127-166
- 한국교육개발원(2006) 조사통계방법론 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 161-177

홍세희, 유숙경(2004), “다변량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중단관계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 131-146

FBI, Uniform Crime Report

Greenberg(1977), “Delinquency and the Age Structure of Society,” *Contemporary Crises*

Hirschi, T. and M. Gottfredson(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Landsheer, J. A., and C. J. van Dijkum(2005) “Male and female delinquency trajectories  
from pre through middle adolescence and their continuation in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40 : 729-48

Laub, J. H., D. S. Nagin, and R. J. Sampson(1998) “Trajectories of Change in Criminal  
Offending: Good Marriages and the Desistance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 225-38

Moffit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Nagin, D. S., D. P. Farrington, and T. E. Moffitt(1995), “Life-course trajectories of  
different types of offenders,” *Criminology* 33 : 111-139

Patterson, G. R., B. D. DeBaryshe, and E. Ramsey(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 329-335

## Trends Analysis and Prospects of Juvenile Delinquency

Noh, Sungho<sup>\*</sup>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e the trend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estimate future trends based on results of current trends analysis. Official crime statistics is used to analyse general trends of delinquency and age-crime curve, and KYPS(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is used to analyse the trends of self reported delinquency by Latent Growth Curve Model analysis.

Recently, youth crime rate in both USA and Korea are decreasing rapidly, but age-crime curve based on crime rate trends by age in a cohort shows different patterns. Violent crime rate trends as youth grow in a cohort in Korea have changed from the pattern to rapid increase to very slow decrease, and property crime rate trends in a cohort show traditional age-crime curve and do not change for last 10 years.

Age-crime curve in Korea seems to settle down and consistent for recent several year and this can make an prospect that there will be no sudden increasing in youth crime rate in near future.

Analysis of KYPS data using LGM support the results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analysis. Although status offenses are increasing as youth grow, violent and property crime are decreasing. Also, the results shows an evidence to interpret to support the existence of two delinquent group and shaping of age-crime curve may due to the criminal behavior of late starters as Patterson and Moffitt suggested.

❖ Keywords : delinquency trends, latent growth model, age-crime relation

투고일 : 2009. 1. 30 / 심사(수정)일 : 2009. 2. 4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

<sup>\*</sup> Professor, Departmen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Science, Junju University, Ph.D. in Sociology